



소개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오르 데코’ 시리즈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의 독창적인 빈티지 세계를

확장하는 다섯 가지 신제품

주요 특징:

- **아이콘을 새롭게 표현한 신제품:** 각각 46 개의 컬러 젬스톤이 세팅되어 클래식한 칵테일 위치를 연상시키는 세 가지 모델과 18K 화이트 골드(750/1000) 소재의 새로운 모노크롬 버전, 그리고 더욱 컴팩트하고 다채로운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유니섹스 사이즈의 신제품 출시
- **빈티지의 품격:** 10m 가 넘는 18K 핑크 골드(750/1000) 또는 화이트 골드(750/1000) 소재의 금실로 제작된 밀라네즈 브레이슬릿과 무광 그레인 다이얼의 조화. 눈부신 광채로 반짝이는 아플리케 인덱스와 도핀 핸즈의 선명한 대비가 선사하는 세련된 스타일
- **아이코닉한 회전 케이스:** 50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7.56mm 두께의 모노페이스 디자인을 통해 독특한 아르데코 라인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모델

2025 년에 출시되어 큰 사랑은 받은 18K 핑크 골드(750/1000) 소재의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오르 데코’에 이어, 예거 르쿨트르는 다섯 가지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며 리베르소의 독보적인 미학을 확장합니다.

-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오르 데코 칵테일’:** 루비가 세팅된 18K 핑크 골드(750/1000) 모델과 에메랄드 또는 블루 사파이어가 세팅된 18K 화이트 골드(750/1000) 모델로 구성된 3 가지 젬세팅 버전을 선보입니다.
-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오르 데코’:** 18K 화이트 골드(750/1000)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오르 데코 솔로 템포': 18K 핑크 골드(750/1000) 소재의 새로운 사이즈 모델로 시간의 정수를 담아냈습니다.

다섯 가지 '오르 데코' 신제품

1920년대 아르데코와 함께 등장해 1930년대에 황금기를 맞이한 켄세팅 각테일 워치의 매력을 담아낸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오르 데코 각테일'이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루비가 세팅된 18K 핑크 골드(750/1000) 버전과 에메랄드 또는 블루 사파이어가 세팅된 18K 화이트 골드(750/1000) 버전으로 선보이는 각 모델은 3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됩니다. 다이얼 상단과 하단의 가드룬 사이에 세팅된 바게트 컷 스톤은 리베르소 특유의 직선적인 구조를 강조하며, 폴리싱 처리된 골드 케이스와 밀라네즈 브레이슬릿, 그리고 섬세한 텍스처와 매트 효과를 지닌 그레인 다이얼과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다이얼 상단과 하단의 가드룬 사이에 자리 잡은 바게트 컷 스톤은 리베르소의 직선을 강조하는 동시에 빈티지한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켄세팅 장인들은 1930년대에 발전한 '인비저블 세팅' 기법의 일종인 레일 세팅을 활용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컬러와 빛의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레일 세팅은 완벽하게 정렬된 직선과 균일한 표면, 그리고 안정적인 고정을 위해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톤이 세팅될 위치 아래의 골드 표면에 1mm 미만의 미세한 레일 프레임을 제작하는 고난도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켄세팅 장인은 스톤을 트랙 위로 안착시킨 뒤, 가장자리에 아주 미세한 양의 골드를 감싸 견고하게 고정하고, 다음 스톤을 차례로 작업합니다. 레일 세팅 기법을 통해 46개의 바게트 컷 블루 사파이어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장인은 스톤에 어떤 손상도 입히지 않으면서 케이스의 골드를 섬세하게 접어 올려야 합니다. 각 스톤은 서로 가장자리를 맞댄 채 레일과 케이스의 골드로만 고정되며, 별도의 지지 없이도 하나의 광채로 이어지는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모든 켄세팅 기술은 정교한 작업을 요하지만, 본연의 섬세한 특성을 지닌 에메랄드는 그중에서도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파손의 위험 없이 생동감 넘치는 에메랄드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스톤을 다루고 세팅하는 과정에서 극도로 정밀한 기술을 구사해야 합니다.

45.6mm x 27.4mm의 케이스와 7.56mm의 슬림한 두께를 자랑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오르 데코 각테일' 신제품은 2025년 오리지널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오르 데코' 모델과 동일한 핸드 와인딩 칼리버 822 로 구동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다이얼의 6 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으며 42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오리지널 버전과 동일하게 직사각형 케이스의 형태에 맞춰 제작된 무브먼트는 매뉴팩처에서 자체 설계 및 제작, 조립되었습니다.

2026 년의 새로운 '오르 데코' 시리즈를 완성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오르 데코'**는 이제 오리지널 18K 핑크 골드(750/1000) 버전 외에 **18K 화이트 골드(750/1000) 모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은하고 파우더리한 텍스처의 실버 그레이 그레인 다이얼부터 찬란한 광채를 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밀라네즈 브레이슬릿과 조화로운 케이스까지, 이 섬세한 시각적 변주는 차가운 느낌의 모노크롬 효과를 더욱 강조합니다. 45.6mm x 27.4mm 의 크기에 7.56mm 의 두께를 지닌 슬림한 케이스로 완성된 18K 화이트 골드(750/1000)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오르 데코'는 42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핸드 와인딩 칼리버 822 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간결한 것이 더 아름답다(Less is more)'는 철학 아래,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오르 데코 솔로 템포'**는 따라 군더더기 없는 디테일과 간결한 사이즈로 대담한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리베르소는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를 과감히 생략해 다이얼의 정수만을 남겼으며, 한층 작아진 케이스로 1930 년대 오리지널 모델의 사이즈(39 x 21mm)에 가장 가깝습니다.

장식을 덜어낸 40.1mm x 24.4mm 의 모노크롬 핑크 골드 디자인은 사이즈와 스타일 모든 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손목에 완벽한 핏을 선사합니다. 7.56mm 의 슬림한 케이스 내부에는 42 시간 파워 리저브를 보장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2 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의 독창적인 세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확장하고 있으며, 리베르소 트리뷰트 컬렉션에 추가된 '오르 데코' 시리즈는 시대를 초월한 아르데코 디자인의 아름다움과 다재다능한 매력을 강조합니다. 빈티지한 화려함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위치는 머지않아 현대의 클래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자인 아이콘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리베르소: 1931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는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sporting gentleman)'를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1858-1947 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 주둔하던 장교들은 격렬한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파손되지 않는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통합한 리베르소가 탄생했습니다. 트렌드세터들로부터 사랑받았던 리베르소는 곧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버전으로 확장하면서 본래의 스포츠용 목적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리베르소는 상징적인 양면 케이스와 독특한 아르데코 라인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베르소는 수십 년 동안 스타일과 메커니즘 측면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었지만, 그 정체성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독특한 디자인은 리베르소의 변치 않는 매력으로, 아르데코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밀라네즈 메시, 스타일 뒤에 숨겨진 이야기: 실크처럼 매끄럽고 균일한 마감이 돋보이는 밀라네즈 메시는 가느다란 금속 실을 정교하게 엮어 작은 링크들이 이중으로 촘촘하게 겹쳐지도록 제작됩니다. 이 방식으로 완성된 메시는 별도의 핀 없이 연결되는 구조 덕분에 리본처럼 유연하면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13 세기 밀라노에서 유래하여 그 지명을 이름에 담은 밀라네즈 메시는 본래 사슬 갑옷의 일종이었고,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금세공인들이 메시지를 진귀한 메탈 버전으로 발전시켜 주얼리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1920 년대 독일 주얼러들이 완벽히 터득하기 전까지 이탈리아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100 년간 밀라네즈 메시가 써 내려온 역사는 리베르소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아르데코 스타일의 정수로서 1930 년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두 아이콘은 20 세기 중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한동안 잊혔지만, 1970 년대에 들어서며 나란히 화려한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밀라네즈 메시가 1970 년대의 미학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위치 브레이슬릿으로 '재탄생'했다면, 리베르소는 밀라노의 시계 유통업자 조르지오 코르보(Giorgio Corvo)에 의해 그 가치가 재조명되어 본격적으로 재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쿼츠 파동' 이후 기계식 위치메이킹이 다시 살아나던 시기와 맞물려, 리베르소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한편, 잠시 유행에서 멀어졌던 밀라네즈 메시는 최근



빈티지와 모던함, 스포티함과 우아함, 남성성과 여성성을 넘나드는 특유의 크로스오버 스타일 덕분에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르 데코' 시리즈의 각 모델은 단순히 기존 디자인에 밀라네즈 메시 브레이슬릿을 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컬러와 텍스처의 조합을 통해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올 골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섬세한 그레인 다이얼은 케이스, 브레이슬릿, 애플리케이션 아워 인덱스의 세련된 광택과 절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또한 브러싱 처리한 18K 골드(750/1000) 일체형 버클은 폴리싱 처리로 눈부시게 빛나는 밀라네즈 메시와 대비 효과를 연출합니다.

밀라네즈 브레이슬릿은 7.56mm 두께의 얇은 리베르소 케이스와 어우러지도록 세심한 연구를 거쳐 슬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서는 금실의 두께와 그에 따른 각 메시 링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각적 일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링크는 전통적인 튜브 방식 대신 바레트가 링크 내부를 직접 통과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메커니즘에 맞춰 러그 홀의 위치와 형태를 변경했습니다. 일체형 슬라이딩 버클 역시 처음부터 새롭게 고안되었습니다. 손목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감싸주는 브레이슬릿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슬라이딩 클래스프 덕분에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골드 소재 특유의 무게감이 더해져 아름답게 균형 잡힌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밀라네즈 링크 브레이슬릿이 장착된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오르 데코'의 *뒤를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다섯 가지 신제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리베르소만의 독보적인 유연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포티하거나 우아한 스타일, 모던하거나 빈티지한 스타일,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스타일 등 서로 다른 매력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며 정체성을 완성합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오르 데코 컬렉션'

케이스: 18K 핑크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 x 7.56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

파워 리저브: 42 시간

다이얼: 골드 톤의 섬세한 그레인 다이얼

젬스톤: 46 개의 바게트 컷 루비(~1.34 캐럿)

방수: 3bar

스트랩: 18K 핑크 골드(750/1000) 밀라네즈 메시 브레이슬릿

클래스프: 18K 핑크 골드(750/1000) 일체형 슬라이딩 클래스프

레퍼런스: Q713211J

3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오르 데코 콕테일'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 x 7.56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

파워 리저브: 42 시간

다이얼: 실버 톤의 섬세한 그레인 다이얼

젬스톤: 46 개의 바게트 컷 에메랄드(~0.95 캐럿) 또는 46 개의 바게트 컷 블루 사파이어(~1.36 캐럿)

방수: 3bar

스트랩: 18K 화이트 골드(750/1000) 밀라네즈 메시 브레이슬릿

클래스프: 18K 화이트 골드(750/1000) 일체형 슬라이딩 클래스프

레퍼런스: 에메랄드 Q713313J, 블루 사파이어 Q713311J



각각 3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오르 데코'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 x 7.56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

파워 리저브: 42 시간

다이얼: 실버 톤의 섬세한 그레인 다이얼

방수: 3bar

스트랩: 18K 화이트 골드(750/1000) 밀라네즈 메시 브레이슬릿

클래스프: 18K 화이트 골드(750/1000) 일체형 슬라이딩 클래스프

레퍼런스: Q713312J

20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오르 데코 솔로 템포'

케이스: 18K 핑크 골드(750/1000)

크기: 40.1 x 24.4 x 7.56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다이얼: 골드 톤의 섬세한 그레인 다이얼

방수: 3bar



스트랩: 18K 핑크 골드(750/1000) 밀라네즈 메시 브레이슬릿

클래스프: 18K 핑크 골드(750/1000) 일체형 슬라이딩 클래스프

레퍼런스: Q716216J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건딜 수 있도록 제작된 위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5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젼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위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위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